“만암 스님 화합 리더십, 韓사회 공공자산”

장성 백양사·고불총림연구원 ‘정화운동과 고불총림’ 세미나
금강 스님 ‘만암 정화론’ 조명
만암 스님, ‘통합’에 중점 둬
화합 방점…합리적 대안 제시
“갈등 극복 위한 리더십 모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와 고불총림연구원은 11월 28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정화운동과 고불총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의 발표 모습.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만암 종헌 대종사(曼庵 宗憲, 1876~1957)가 정화운동 시기에 보인 정화론과 리더십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와 고불총림연구원(원장 금강 스님)은 11월 28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정화운동과 고불총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 정화운동 연구 회고 및 전망과 만암 스님의 정화론, 종사 인식 등을 조명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고불총림연구원장)은 ‘만암 스님과 정화운동’을 통해 만암 스님의 정화론과 리더십의 면면을 살펴 눈길을 끌었다.

금강 스님에 따르면 해방 이후 왜색 불교 철폐를 강조하며 진행된 정화운동에서 만암 스님은 ‘급진’보다는 ‘점진’, ‘즉각적 청산’보다는 ‘통합적 개혁’에 방점을 뒀다. 이는 당시 대처승이 우세였고, 종단 내부 갈등이 있던 한국불교의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만암 스님은 비구승에게 주요 사찰을 할애하고 사찰 운영을 맡겨서 승가의 중심축이 서서히 비구로 전환하고 동시에 대처승의 법맥이 당대에 자연적으로 단절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계율을 수호하고 청정을 유지한 비구승은 ‘정법중(正法衆)’으로, 대처승은 ‘호법중(護法衆)’으로 구분하고 ‘호법중’은 포교와 교화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

금강 스님은 “정법중과 호법중의 구분은 대처승을 배제하기보다는 역할을 구분하고 재정립해 화합과 공존을 모색한 통합적 정화모델이었다”면서 “이 같은 만암 스님의 통합적 정화론은 이판사판의 불교 전통 모델에 기초한다. 이를 통해 스님은 사부중에 호법중을 더해 5부중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화론을 바탕으로 금강 스님은 막스 베버의 지배유형론에 근간해 만암 스님의 리더십을 분석하기도 했다. 금강 스님은 전환기 한국불교에서 보여진 만암 스님의 리더십은 △합리성 △통합 △실천성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만암 스님의 리더십은 점진성과 합리성, 교단화합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법적 지배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강 스님은 만암 스님의 정화론과 리더십을 현대 한국불교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함을 역설했다.

스님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가치 충돌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상호 인정의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암 스님의 리더십은 극단의 대립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대화·조정·제도화의 실천적 지혜로서 오늘의 민주사회가 참고해야 할 공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암 스님의 리더십에 대한 재조명은 한국불교의 미래뿐만 아니라 갈등 극복과 사회적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해외불교는 지금

‘불교 극단주의’ 논란

민족주의적 목표 달성 위해
일부 출가자들 부추김 문제

평화와 비폭력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불교. 그러나 최근 민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출가자와 신도들이 폭력을 부추기는 모습들이 관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영국의 ‘더 가디언’은 인도의 유명 저널리스트 소니아 팔레이로의 기고를 인용해 동남아시아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교 극단주의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불교는 근현대에 들어 서구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 가며, 서구의 물질주의와 군비확장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폭력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스리랑카와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들에서 민족주의 단체들이 공포와 혐오 조장, 호전적인 조직 활동, 폭력 선동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면서 불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에서 극우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출가자들이 “소수 종교단체의 위협에서 불교를 보호한다”는 기치 아래 불교신도들을 결집시키면서 스리랑카 무슬림 소수민족은 물론 최근에는 스리랑카 기독교계에게도 공포의 상징이 됐다. 미얀마에서도 아신 위라투와 같은 극우적 성향의 출가자들이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설법과 연설을 이어가면서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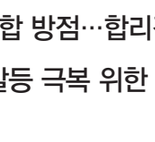
소니아 팔레이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저들의 행동은 인종적 위계를 도입하고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선시하는 식민주의와 같은 역사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긴장을 심화시켜 대중이 종교에서 위안을 찾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승려들에게 불균형적인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했다. 이러한 양상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한 반이슬람 폭동에서도 알루스가마 지역의 경우 스리랑카 불교 극단주의의 지도자로 불리는 그나나사라 스님이 방문한 직후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소유한 상점과 가옥들이 공격을 받고, 무슬림들에 대한 집단 구타 등이 다수 보고 됐음에도 사망자 수가 적었던 것에 대해 “무슬림들에 대한 경제적 시기심과 갈등이 주요 이유”라고 소니아는 지적했다. 그는 “최근 스리랑카의 불교 극단주의는 힌두교나 무슬림을 넘어 기독교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독교 성직자들이 공격을 받거나 교회가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그나나사라 스님은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 내야 한다”라며 자신이 세운 단체인 ‘불교도의 힘 군대(BBS)’는 비폭력주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더 가디언은 “그는 한 BBS 집회에서 ‘이 나라엔 싱할라 경찰과 군대가 있다. 단 한 명의 무슬림이나 다른 소수민족이 싱할라족에 손을 댄다면 그것을 그들의 종말이 될 것’이라 연설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2018년 반무슬림 폭동에서 테러를 당한 스리랑카 무슬림의 가게를 둘러보는 경찰들. 사진 출처=더 가디언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분노에 휩싸일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㉑ 진(瞋)

瞋

2002년, 현대의 선지식이었던 베트남 틱낫한 스님의 저서 〈화〉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화’가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심리 현상임을 보여 준다.

경전 곳곳에서도 분노의 해악을 강조한다. 〈증일아함경〉은 “분노는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다음 상대를 태운다”라고 설한다.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거친 언사와 행동을 쏟아 내는 분노는 쌓아 온 공덕의 숲을 태워 버린다. ‘분노의 불길’이라는 표현이 이를 상징한다. 진심(瞋心)은 삼독 가운데 하나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마음의 현상을 다섯 범주와 75개 요소로 분석하며, 분노를 탐욕[貪]·어리석음[痴]·교만[慢]·의심[疑]·잘못된 견해[惡見]와 함께 여섯 근본 번뇌 중 하나로 본다. 그만큼 분노는 고통과 불행을 짓는 주춧돌과 같은 번뇌다.

동서고금의 성인과 사상가들도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일러 왔다. 로마 제국의 오현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잘못에 화가 날 때 ‘나 역시 불완전한 존재’임을 먼저 떠올리라고 말한다. 그는 분노를 품는 것은 타인의 잘못으로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라 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분노는 피할 수 없는 마음 작용이지만 오래 붙들지 말라는 뜻이다.

문명이 팽창하고 경쟁이 극심해질수록 자기 억압과 분노의 강도는 높아진다. 우울증·자살·무차별적 폭력 등 여러 정신병리의 기저에도 분노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며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

붓다는 분노가 실체 없는 ‘조작된 것’임을 통찰하라고 한다. 위빠사나 수행은 분노가 불변의 속성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관찰하게 한다. 즉 분노는 영원하지도, 고정되지도 않는 비실체적 현상이다.

분노의 일시적 성질은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에서도 드러난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화가 일어났구나’하고 알아차리라.” 이는 ‘분노’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잠시 일어난 현상으로 관찰할 때 그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불법(佛法)의 근간은 연기법이다. 분노 역시 연기의 이치로 관찰하고 다스려야 한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지 말 것, 이미 일어난 분노는 침착하게 바라보고 다스릴 것, 연민과 자애를 마음에 심어 꾸준히 가꿀 것. 몸과 마음이 자비심으로 충만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화순 불암사 주지〉



현시대에 맞게 되살린 붓다의 가르침!
불교 이후
세계적인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가 전통적인 불교 해석을 넘어 우리 시대, 현시대에 맞게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신국판, 532쪽, 값 30,000원

업과 윤회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업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데, 다양한 경전과 설화를 인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옮김, 신국판, 256쪽, 값 18,000원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 신국판, 384쪽, 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